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작업공정에 선행되는 안전

LCD/PDP, 철도내장재, 항공 및 방산, 신 재생에너지분야 등에서 복합재료 전문기업으로 2000년에 출범, 현재 업계에서도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주)에드컴텍은 (주)케이엠의 모태이다. 지난해 3월 미래 에너지원을 선도할 풍력발전 분야에 뛰어든 (주)케이엠은 1년여의 연구 개발 끝에 금년 6월 풍력발전기의 날개부분인 블레이드 양산에 들어갔고 그 첫 출하를 앞두고 모든 임직원의 손놀림이 한창 바쁘다.

회합과 창조 그리고 상생의 경영이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케이엠은 직원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케이엠으로 성장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취재 | 최종덕 기자

KM 안전에 3정 5S가 기반

풍력발전기에 있어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날개부분(블레이드)을 전문 생산하는 KM은 블레이드가 설게 되면 모든 공정이 작업들 개개인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다. 제품 특성상 자동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수공구와 이동식 기계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소한 위험 또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직원들이 자칫 긴장을 늦추기라도 하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안전에 대해 장담하기 힘든 KM 생산현장에 안전의 씨앗을 심어주어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하게 한 것이 있다. 3정 5S가 바로 그렇다. 품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개발된 3정 5S가 KM에서는 정리정돈 생활화로 안전을 먼저 이행하고 이를 통해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생각하는 안전활동 기법으로 KM만의 안전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산공장 준공 이래 지금까지 작은 사고 한 건 없는 것도 KM



의 3정 5S의 정리정돈으로 안전한 KM을 만들고 있다.

믿음이 있는 KM에 안전이 있다

설비의 안전 그리고 신체적인 안전은 KM의 안전에 있어 기본 사항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정신적 안전이 있다.

직원의 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것, 안전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KM이 되는 것이다.

“가장이 출근할 때 아빠를 믿는 가족이 있어 아빠는 힘이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장연석 상무이사의 말과 같이 직원이 KM을 믿고 글로벌 기업으로 함께 성장시키고 있기에 케이엠은 힘이 절로 생겨난다. 이러한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통해 마음에 안정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것이 장연석 상무이사가 말하는 정신적 안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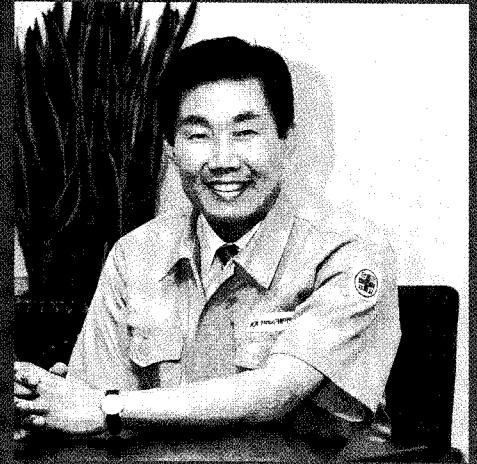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성안전을 실천하고 있는 KM에 안전도 믿음에서 일어나오고 있다.

안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KM

블레이드를 생산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사상공정 그리고 유리섬유와 화학물질인 합성수지를 사용해야하는 KM은 분진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합성수지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여기서도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에도 인색함이 없는 KM의 안전마인드를 엿볼 수 있다.

합성수지가 피부와 접촉을 막고 혹시 접촉이 되었다 해도 신속하게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세정제를 현장에 비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안경 착용은 필수다. 그리고 사상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군산 공장 준공시부터 고려되어 집진시설이 설치 되었으나 양산에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국부적인 분진을 위한 집진설비와 전체 공기조화를 위한 국소배기장치로 전면 개선하였다. 집진설비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된다면 투자는 아낌없이 이루어 진다.

(주)케이엠은 1주년이 조금 지난 새내기 기업이다. 그러나 안전을 실천하는 모습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곧 세계 속의 이들의 명성이 쉽게 들을 날이 올거라 생각한다. ☺



정신적 안전으로 미래 녹색에너지 시장 중심에 설 터

올 6월부터 풍력발전기의 날개부분인 블레이드 양산체제에 들어 첫 출하를 앞두고 있는 우리 KM은 직원들이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믿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최첨단기술과 수작업이 공존하는 공정으로 비행기 날개 만들 때의 엔지니어의 설계기술과 작업자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근로자입니다.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신나게 일을 하면서 올바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또한 안전입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근로자 한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KM의 안전목표이기도 합니다.

안전에는 크게 신체적 안전, 정신적 안전, 설비적 안전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신체적 안전과 다치지 않게 하는 설비의 안전은 안전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생각하는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대시대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적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정신적 안전입니다. 수작업이 대부분의 공정을 차지하는 우리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화되면 이는 곧 현장에서 안전한 행동과 안전한 생각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장영석 상무이사



안전한 작업을 해야 할 권리는 직원의 몫

제가 군을 제대한 나이 23살 때 저의 형님이 28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하늘나라로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난 후 안전은 어느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태수 부장

경영주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 그 모든 아픔과 손실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산재근로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결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면 직원 각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